

##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외상 후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이 동 훈    이 수 연<sup>†</sup>    윤 기 원    최 수 정    김 시 형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이전(pretrauma)의 성격적 특성인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이 외상 후 인지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포함된 가설적 연구모형과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가 제외된 경쟁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은 외상 후 성장과 PTSD 증상 간에 외상 후 인지 및 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개방성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신경증적 경향성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외상 후 성장모델의 인지과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 외상 후 성장, PTSD 증상

---

<sup>†</sup> 교신저자: 이수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appytoy46@naver.com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심각한 상해, 신체 및 성적 폭력 또는 자연 재해 등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트라우마(trauma)'라고 한다(APA, 2013). 최근에는 DSM-5 진단준거 A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 수준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Kubany et al., 2000; Robinson & Larson, 2010), 일생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업 문제 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들 또한 트라우마로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개인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및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트라우마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이 점차 회복되지만, 일부는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의식에 침습하여 재경험되거나,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사건과 관련된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경험하기도 한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비율을 보면, 미국인의 경우 7.8%, 한국인의 경우 4.71%로 보고되었다(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2001).

기존의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연구 및 치료의 대부분은 개인의 고통과 사건 이후의 적응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반면, 최근에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전보다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갖으며 성장을 경험하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다룬 것은 1990년대 Frankle(1962)의 의미치료와 Caplan(1964)의 위기이론을 시작으로, 긍정 심리학의 대두는 트라우마가 어떤 사람

에게는 병적인 결과를 유발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트라우마 경험 이전 보다 더 나은 기능과 적응에 초점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Tedeschi와 Calhoun(1996)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거기에 적응하려는 결과로 생겨난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단순히 트라우마 이전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Zoellner & Maercker, 2006).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이 트라우마 경험 이전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갖으며 성장을 경험하는 등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로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75%에서 9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Tedeschi, Park, & Calhoun, 1998).

이후 Tedeschi와 Calhoun(2004)은 극심한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외상 후 성장 모델(A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을 통해 제시하여,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의 개인의 특성부터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내에 여러 가지 변인들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가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살아오면서 형성된 신념 체계와 이해의 근거인 내적 도식과 기존의 목표가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외상 후 부정적 인지를 갖게 된다. Tedeschi 와 Calhoun(2004)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도식으로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에 부딪히면서 갖게 된 외상 후 부정적 인지는 외상 후 성장으로 가기 위한 새로

운 도식을 형성하기 위해 '반추(rumination)'라는 인지과정을 일으킨다고 보았다(Janoff-Bulman, 1992). 여기서의 반추는 사건관련(event-related) 반추로, 자동적으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떠올리는 침습적(intrusive)반추와, 자발적으로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반복적 사고를 의미하는 의도적(deliberate)반추로 구분된다.

침습적 반추는 트라우마 경험 초기에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식에 침투하는 사고로서 트라우마 경험을 재경험하게 하고 두려움을 지속시킴으로써 PTSD 증상으로 이어지는 예측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Calhoun, Cann, Tedeschi, & McMillan, 2000; Tedeschi & Calhoun, 2004),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Ehlers & Clark, 2000). 반면, 의도적 반추는 경험한 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신선영, 2009; Calhoun et al., 2000; Cann, Calhoun, Tedeschi, & Solomon, 2010).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 경험 직후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행동전략 과정을 통해 침습적 반추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구성하려는 의도적 반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Tedeschi와 Calhoun(2004)는 개인은 적응과 성장으로 나아가 삶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성장모델에서 트라우마 경험 이전(pretrauma)에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트라우마 이후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즉, 동일한 충격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음지라도,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누군가는 인지과정을 거쳐 삶의 의미 확장이란 성장에 이르는 반면, 누군가는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인지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리적 고통만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 경험 이전의 개인적 특성에는 대표적으로 낙관성, 성격 5요인, 희망, 자기 효능감 등의 변인들이 있으며(Shakespeare-Finch, 2002; Tedeschi et al., 1998), 이러한 변인들은 트라우마 경험 이후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트라우마 경험 이전의 개인적 특성이 정보처리를 다루는 개인의 방식과 관련되며, 개인이 경험하는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반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Stanton, Bower, & Low, 2006; Tedeschi & Calhoun, 2006).

트라우마 경험 이전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격 5요인은 PTSD 증상과 같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Affleck & Tennen, 1996; Buss, 1989; Casella & Motta 1990; Watson & Hubbard, 1996). 성격 특성은 학자들마다 제시하고 있는 바와 분류 기준이 다양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성격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이 적용되고 있다(Costa & McCrae, 1980; Hills & Argyle, 2001; Wood, Joseph, & Maltby, 2009).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포함

한 개인의 성격적 요인은 안정적이고 기질적인 특성으로 비교적 바뀌지 않아(Jia, Ying, Zhou, Wu, & Lin, 2015) 이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특정 성격특성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들에 대한 이해는 개입 시 상황에 적절한 성격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거나 PTSD 증상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Sheikh, 2004)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은 일생생활의 부적응이나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반복적인 신경증적 긴장, 우울, 좌절, 죄책감, 자의식은 비합리적인 사고, 낮은 자존감, 충동과 열망에 대한 낮은 통제력, 신체화 증상 호소, 비효율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으며(MaCrae & Costa, 1987),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들과 다양한 정신적인 병리현상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심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정서적 도움을 구하는 지원추구 대처와 문제해결중심 대처를 하는 등 기분을 고양시키는 인지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Vollrath, Alnaes, & Torgersen., 1995). 개방성은 지적인 자극과 호기심이 많고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며, 새로운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간주한다(John, Naumann, & Soto, 2008). 우호성은 공감, 예의, 신뢰 등의 특징을 보이며(Edwards, Weary, & Reich, 1998), 우호성이 높을수록 타인을 존중하고 온화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편안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려

고 하나,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쉽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성취 의지로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이끄는 차원으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규칙, 규범들을 열심히 지킨다. 또한 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업과 직업수행에서의 높은 평가와 관련이 있다(John, Naumann, & Soto, 2008). 이와 같이 성격의 5가지 요인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으며,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Keyes, Ryff, & Shmotkin, 2002).

성격 5요인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 반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신경증적 경향성 외의 다른 요인들은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들 또한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우선, 신경증적 경향성은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Schnurr & Vielhauer, 1999), 이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Florian, Mikulincer, & Taubman, 1995), 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Luyckx, Klimstra, Duriez, Schwartz, & Vanhalst, 2012; Teasdale & Green, 2004). 외향성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인 동시에 PTSD 증상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Fauerbach, Lawrence, Schmidt, Munster, & Costa, 2000; Val & Linley, 2004). 하지만 Schnurr와 Vielhauer(1999; Lawrence & Fauerbach,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외향성이 PTSD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외향성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Karanci et al., 2012; Schnurr & Vielhauer, 1999). 개방성은 높은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으로,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easdale & Green, 2004; Trapnell & Campbell, 1999). 이처럼 개방성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서 PTSD 증상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Edwards, Weary, & Reich, 1998; Tedeschi & Calhoun, 1996), 일부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상반되는 연구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다(Berntsen & Rubin, 2006; Fitzgerald, Berntsen, & Broadbridge, 2016). 우호성 또한 수준이 높을수록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경험한 사건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며(Edwards, Weary, & Reich, 1998; Miller, 1991), 낮을수록 PTSD 증상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ska & Renshaw, 2013). 그러나 역시 일부 연구에서는 우호성이 PTSD 증상이나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ant & Langan-Fox, 2007; Lawrence & Fauerbach, 2003).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성실성이 높을수록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대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고(Magnus, Diener, Fujita, & Pavot, 1993), PTSD 증상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Skodol, 1998). 일부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사건에 대한 부정적 반추를 많이 함으로써 PTSD 증상

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Petrides, Pita, & Kokkinaki, 2007), PTSD 증상이나 외상 후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 또한 제시되고 있다(Lawrence & Fauerbach, 2003). 이처럼 신경증적 경향성을 제외한 성격 요인들의 경우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어 성격 5요인의 영향력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혼란은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각 연구별 상이한 반추 척도의 사용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즉, 연구자마다 화재(Lawrence & Fauerbach, 2003)나 전쟁(Stevanović et al., 2016) 등 특정 트라우마 사건 피해자를 선정하거나 한정된 연령 등을 사용하였으며, 반추 척도 사용에 있어서도 의도적 반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성찰(reflection)을 측정하는 반추성찰 질문지(Rumination - Reflection Questionnaire, 이하 RRQ; Trapnell & Campbell, 1999)나 주로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반응양식에 초점을 둔 반추 반응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이하 RRS; Nolen-Hoeksema & Morrow, 1991)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성찰이 트라우마 이후 반드시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Mor & Winquist, 2002)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덧붙여, 국내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이전(pre-trauma)요인으로서 성격 5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해외의 경우 성격 5요인에 대한 연구들 또한 불일치한 혼란스러운(confounding)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아직

까지 성격 5요인이 외상 후 성장 및 PTSD 증상 또는 반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확인할 뿐, 성격 5요인부터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외상 후 인지 및 반추와 같은 인지과정을 거쳐 PTSD 증상 또는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 후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트라우마 경험 이전(pre-trauma)의 성격적 특성부터 반추 과정을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경험 이전의 성격적 특성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그림 1)을 설정하였으며,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를 거쳐 PTSD 증상 또는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제외된 경쟁모형(그림 2)을 설정하였다. 이는 외상 후 성장 모델을 국내의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적용하여 이론의 경험적 기초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경험 이전(pre-trauma)의 성격적 특성을 트라우마 이후 개인의 긍정적인 결과와 변화를 이끄는 데 활용함으로써, 트라우마 경험자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은 어떠한가?
2. 성격 5요인이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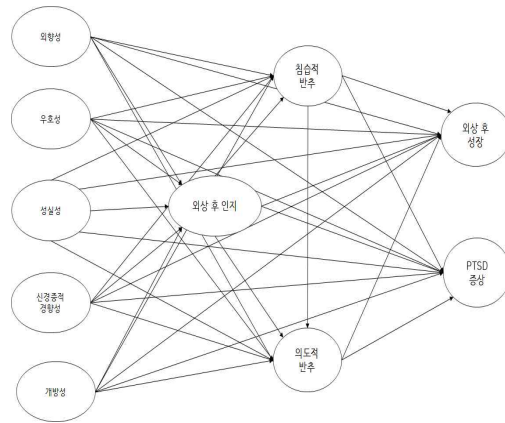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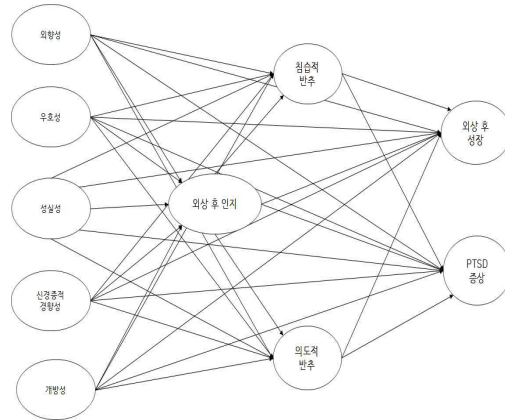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있는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5년 9월 25일~2015년 10월 8일

까지 총 13일간 실시되었으며 작성 시간은 평균 20~30분이 소요되었고, 회수율은 100%였다. 트라우마 사건 경험 이후, 개인의 PTSD 증상 발현 및 회복 경로를 확인하고자 트라우마 사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21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PTSD 증상이 트라우마 경험 이후 1개월 이후에 발생한다는(APA, 2013) 기준과 외상 후 6개월이 경과됨에도 PTSD 증상이 지속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Dekel & Bonanno, 2013), 외상을 경험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24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참여

자들에게 소정의 사은품이 지급되었고, 연구자 소속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트라우마 사건 경험 빈도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628명(12.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세월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TV, 인터넷 등)나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마음이 힘들 600명(11.57%),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410명(7.90%), 가족구성원과 극심한 다툼 및 잦은 다툼 337명(6.5%), 심각한 사고를 목격 332명(6.4%),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실패나 절망이 307명(5.92%)의

표 1.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항목	n(%)	변인	항목	n(%)
거주 지역	1) 서울	161(19.1)	성별	1) 남	425(50.4)
	2) 부산	60(7.1)		2) 여	419(49.6)
	3) 대구	45(5.3)	나이	1) 28세 이하	20(2.4)
	4) 인천	51(6.0)		2) 29-39세	207(24.5)
	5) 광주	26(3.1)		3) 40-49세	242(28.7)
	6) 대전	25(3.0)		4) 50-59세	249(29.5)
	7) 울산	23(2.7)		5) 60세 이상	126(14.9)
	8) 세종	1(1)	학력	1) 중졸 이하	12(1.4)
	9) 경기	215(25.5)		2) 고졸	185(21.9)
	10) 강원	24(2.8)		3) 대졸	560(66.4)
	11) 충북	22(2.6)		4) 대학원 졸업	81(9.6)
	12) 충남	32(3.8)		5) 기타	6(.7)
	13) 전북	31(3.7)		직업	1) 직장인
	14) 전남	29(3.4)	2) 자영업		104(12.3)
	15) 경북	43(5.1)	3) 전문직		63(7.5)
	16) 경남	47(5.6)	4) 전업주부		177(21.0)
	17) 제주	9(1.1)	5) 무직		39(4.6)
		6) 기타	26(3.1)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가장 고통스럽다고 선택한 트라우마 사건의 빈도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22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155명(18.4%), 세월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TV, 인터넷 등)나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마음이 힘들 35명(8.1%), 심각한 사고를 겪음 49명(5.8%), 가족구성원과 극심한 다툼 및 잦은 다툼 48명(5.7%)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 트라우마 경험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The Life Stressor Checklist-Revised(LSC-R), Stressful Life Events Screening Questionnaire (SLESQ), Traumatic Life Events Questionnaire (TLEQ)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한 트라우마 경험 질문지(서영석, 2012; 송승헌, 2007; 신선영, 정남운, 2012)를 참고하여 트라우마 사건 유형을 포함하였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31개 트라우마 사건 범주를 확정하였으며, 31개의 트라우마 사건 이외에 본인이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을 문항으로 제시하여 직접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31개 트라우마 사건은 심각한 재해(자연재난, 비전염성 사회재난, 전염성 사회재난), 심각한 사고 목격(교통사고, 산업재해, 추락사고, 화재 등), 심각한 사고를 겪음(교통사고, 산업재해, 추락사고, 화재 등),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암, 심장마비, 우울증 등),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신체적 방

임(기본적인 의식주, 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받지 못함), 낙태나 유산의 경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와 분리되거나 못 보게 됨,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자녀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짐, 가까운 사람의 죽음, (16살 이전) 가정폭력 목격, (16살 이전) 아는 사람으로 부터 신체적 학대나 폭행(성폭행, 성추행 제외), (16살 이후) 아는 사람으로 부터 신체적 학대나 폭행(성폭행, 성추행 제외), (16살 이전) 성추행을 당함, (16살 이후) 성추행을 당함, (16살 이전) 성폭행을 당함, (16살 이후) 성폭행을 당함,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대인관계문제(갈등 및 다툼, 배신, 따돌림 등), 가족구성원과 극심한 다툼 및 잦은 다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생활고, 본인 혹은 부모님의 해고, 실직 부도, 파산 등), 부모님의 별거 혹은 이혼, 본인의 별거 혹은 이혼, 시설의 위탁이나 입양경험,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실패나 절망재수, 사업, 학업실패), 폭행 강도 등의 범죄 사건을 목격,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본인이나 가족의 구속, 수감생활 경험, 세월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TV, 인터넷 등)나 주변 이야기로 마음이 힘들, (자녀가 아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및 질병을 가진 누군가를 돌봐야 했음 포함된다. 최종 확정된 트라우마 사건 범주 중 16개의 사건이 DSM-VI의 진단기준 A에 해당되며, 15개의 사건이 문화적 맥락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사건(대인관계 문제, 가족관련 문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실패와 절망, 매체로 인한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 외상 후 인지 척도(Posttraumatic Cognitions

#### Inventory: PTCI)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후 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Foa, Ehlers, Clark, Tolin과 Orsillo (1999)가 개발하고 안현의(2005)가 번안한 트라우마 후 인지척도(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를 사용하였다. PTCI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21문항),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7문항), 자기비난(5문항) 총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트라우마 후 인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oa 등(1999)의 원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하위척도 별로 .97, .88, .86으로 나타났고,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하위척도별로 .95, .85,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하위척도별로 .97, .89, .86으로 나타났다.

### 성격 5요인 척도(Mini-International Personality

#### Item Pool: Mini-IPIP)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Donnellan, Oswald, Baird, Lucas(2006)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Mini 버전을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하는 과정은 미국에서 6년 이상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석사과정 학생 3명이 번역과 크로스 체크를 하였고, 이후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교수와 박사과정 2명의 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국대학의 한국인 교수와 작업을 하여 번안 작업을 완료하였다. 본 척도는 외향성(4문항), 우호성(4문항), 성실성(4문항), 신경증적 경향성(4문항), 개방성(4문항) 총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Donnellan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하위척도별로 .77, .70, .69, .69, .6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하위척도별로 .69, .61, .74, .79, .66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vent Related

#### Rumination Inventory: K-ERRI)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관련 반추를 알아보기 위하여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2013)이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ERR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도적 반추(10문항)와 침습적 반추(10문항) 총 2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0점)에서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척도는 동일하게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고, 침습적 반추의 Cronbach's  $\alpha$ 는 .96, 의도적 반추의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mpact of

#### Event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IES-R-K)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경험 후에 사건에 대한 적응 정도와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Horowitz, Wilner와 Alvarez(1979)이 개발하고 Weiss와 Marmar(1997)가 개정한 IES-R을, 은헌정 등(2005)이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ES-R-K)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과각성(6문항), 침습(8문항), 회피(8문항) 총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0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있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은현정 등(2005)의 연구에서는 과각성, 회피, 침습의 Cronbach's  $\alpha$ 가 각각 .87, .70, .6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7이었고, 과각성의 Cronbach's  $\alpha$ 는 .90 회피의 Cronbach's  $\alpha$ 는 .92 침습의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외상 후 성장(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인 인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지각의 변화(5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6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2문항) 총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로 '경험하지 못함(0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경험(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기 쉽다는 단점과 모수 추정치를 줄일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항 꾸러미를 사용하였다(김수영, 2016). 또한, 문항 꾸러미들이 해당 잠재 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할 때 효과가 최대화 된다는 Russe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하여, 각 척도의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어 사용하였다. 둘째, Amos 21.0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격 5요인과 외상 후 성장과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정규성과 경향성을 검증하고자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다. 성격

표 2. 전체 대상자의 연구변인 기술통계

		M	SD	왜도	첨도
성격 5요인	1. 외향성	2.74	0.73	0.02	0.02
	2. 우호성	3.08	0.58	-0.08	0.30
	3. 성실성	3.53	0.74	-0.10	-0.45
	4. 신경증적 경향성	2.73	0.88	0.23	-0.48
	5. 개방성	2.72	0.63	-0.09	-0.06
외상 후 인지	6.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3.20	1.37	0.27	-0.70
	7. 자기비난	2.31	1.26	0.79	-0.27
	8.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2.30	1.25	0.86	-0.20
사건관련 반추	9. 침습적 반추1	1.83	0.75	0.50	-0.81
	10. 침습적 반추2	1.84	0.76	0.49	-0.81
	11. 의도적 반추1	2.10	0.78	0.06	-1.04
	12. 의도적 반추2	2.16	0.77	-0.06	-0.98
PTSD 증상	13. 과각성	1.75	0.83	1.22	0.89
	14. 회피	2.01	0.80	0.79	0.03
	15. 침습	2.06	0.78	0.93	0.47
외상 후 성장	16. 자기 지각의 변화	3.72	1.15	-0.44	-0.31
	17. 대인 관계의 깊이증가	3.46	1.10	-0.29	-0.26
	18.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65	1.19	-0.37	-0.33
	19.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77	1.59	0.48	-0.97

5요인,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상관계수와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표 3과 같다.

#### 측정모형 검증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시 도구가 개발 되고 이미 요인 구조가 확정된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보다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4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는 게 좋다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순목, 2000; Hair et al., 2006; Pett et al., 2003) 외향성 1문항, 우호성 2문항, 성실성 1문항, 신경증적 경향성 1문항 총 5개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 값이 1286.306( $df=332, p=.000$ ), CFI와 TLI는 각각 .932, .917이며, RMSEA는 .059 (90% 신뢰구간=.055-.062)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어, 측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p	RMSEA	CFI	TLI
측정모형	1286.306	332	.000	.058(.055-.062)	.932	.917

표 3. 전체 대상자의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외향성	1																	
2. 우호성	.422**	1																
3. 성실성	.057	.092**	1															
4. 신경증적 경향성	-.244**	-.177**	-.261**	1														
5. 개방성	-.126**	-.239**	-.086**	.200**	1													
6.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213**	-.174**	-.050	.453**	.128**	1												
7. 자기비난	-.108**	-.052	-.148**	.404**	.145**	.629**	1											
8.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208**	-.152**	-.200**	.567**	.175**	.747**	.803**	1										
9. 침습적 반추1	-.111**	-.034	-.111**	.434**	.064	.630**	.632**	.711**	1									
10. 침습적 반추2	-.125**	-.027	-.117**	.412**	.070*	.623**	.622**	.681**	.892**	1								
11. 의도적 반추1	.038	.089**	.013	.093**	-.019	.313**	.371**	.291**	.437**	.447**	1							
12. 의도적 반추2	.049	.080*	.062	.052	.010	.316**	.337**	.265**	.441**	.438**	.826**	1						
13. 파각성	-.049	-.034	-.136**	.404**	.016	.543**	.543**	.631**	.681**	.658**	.376**	.343**	1					
14. 회피	-.059	-.025	-.101**	.316**	.035	.514**	.510**	.545**	.597**	.606**	.347**	.338**	.797**	1				
15. 침습	-.034	.001	-.111**	.378**	-.013	.538**	.501**	.583**	.675**	.683**	.409**	.372**	.890**	.810**	1			
16. 자기 각각의 변화	.199**	.180**	.179**	-.285**	-.123**	-.107**	-.093**	-.243**	-.055	-.024	.285**	.299**	.036	.086*	.036	1		
17. 대인 관계의 깊이 증가	.257**	.309**	.106**	-.192**	-.045	-.197**	-.033	-.191**	-.069*	-.030	.273**	.243**	.036	.069*	.058	.734**	1	
18. 새로운 기능성의 발견	.173	.178	.150**	-.169**	-.099**	-.046	-.001	-.152**	-.002	.020	.324**	.345**	.099**	.131**	.103**	.750**	.740**	1
19.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125**	.160**	.077*	-.037	-.008	.018	.121**	.042	.106**	.129**	.251**	.248**	.191**	.182**	.145**	.486**	.495**	.495**

주. \* $p < .05$ . \*\* $p < .01$ .

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경로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로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TLI,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10 이하가 되는지 평가하였다. 연구모형[ $\chi^2(306, N=843)=1223.103, p=.000, CFI=.934, TLI=.918, RMSEA=.060(90\% \text{ 신뢰구간}=.056-.063)$ ]. 경쟁모형[ $\chi^2(307, N=843)=1322.099, p=.000, CFI=.926, TLI=.909, RMSEA=.063(90\% \text{ 신뢰구간}=.059-.066)$ ] 표 5에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Delta\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elta\chi^2=98.995(df=1,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과 같다.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외향성이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139, p<.001$ ), 외향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beta=.16, p<.01$ ), 신경증적 경향성이 외상 후 인지로 가는 경로( $\beta$

$=.617, p<.001$ ), 신경증적 경향성이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108, p<.05$ ), 외상 후 인지가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beta=.892, p<.001$ ), 외상 후 인지가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211, p<.001$ ),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beta=.611, p<.001$ ), 침습적 반추가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507, p<.001$ ), 의도적 반추가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104, p<.001$ ),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beta=.461, p<.001$ )는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우호성이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096, p<.05$ ), 신경증적 경향성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beta=-.209, p<.001$ ), 개방성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beta=-.091, p<.05$ ), 개방성이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beta=-.101, p<.01$ ), 외상 후 인지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beta=-.282, p<.001$ )는 부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외향성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외향성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외향성이 외상 후 인지로 가는 경로, 우호성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우호성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우호성이 외상 후 인지로 가는 경로, 우호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개방성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개방성이 외상 후 인지로 가는 경로, 개방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성실성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성실성이 의도적 반추로

표 5.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chi^2$	<i>df</i>	<i>p</i>	RMSEA	CFI	TLI	$\Delta\chi^2$
경쟁모형	1322.098	307	.000	.063(.059-.066)	.926	.909	98.995***
연구모형	1223.103	306	.000	.060(.056-.063)	.934	.918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beta(B)$	S.E.	t
외향성 → 침습적 반추	.026(.037)	.053	.704
외향성 → 의도적 반추	.077(.104)	.067	1.557
외향성 → 외상 후 인지	-.024(-.05)	.096	-.52
외향성 → PTSD 증상	.139(.217)	.06	3.638***
외향성 → 외상 후 성장	.16(.31)	.098	3.169**
우호성 → 침습적 반추	.033(.039)	.042	.913
우호성 → 의도적 반추	.011(.013)	.053	.236
우호성 → 외상 후 인지	-.015(-.026)	.077	0.332
우호성 → PTSD 증상	-.096(-.125)	.047	-2.682*
우호성 → 외상 후 성장	-.026(-.042)	.076	-.545
신경증적 경향성 → 침습적 반추	.074(.07)	.043	1.629
신경증적 경향성 → 의도적 반추	-.209(-.189)	.054	-3.488***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인지	.617(.865)	.072	11.988***
신경증적 경향성 → PTSD 증상	.108(.113)	.048	2.365*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성장	-.114(-.147)	.079	-1.862
개방성 → 침습적 반추	-.091(-.119)	.048	-2.499*
개방성 → 의도적 반추	.057(.071)	.06	1.187
개방성 → 외상 후 인지	.05(.098)	.086	1.138
개방성 → PTSD 증상	-.101(-.145)	.053	-2.75**
개방성 → 외상 후 성장	.041(.073)	.086	.847
성실성 → 침습적 반추	.044(.036)	.025	1.439
성실성 → 의도적 반추	.058(.046)	.032	1.444
성실성 → 외상 후 인지	.001(.001)	.046	.027
성실성 → PTSD 증상	-.024(-.022)	.028	-.783
성실성 → 외상 후 성장	.044(.05)	.046	1.081
외상 후 인지 → 침습적 반추	.782(.527)	.029	18.478***
외상 후 인지 → 의도적 반추	.027(.017)	.043	.402
외상 후 인지 → PTSD 증상	.211(.157)	.038	4.16***
외상 후 인지 → 외상 후 성장	-.282(-.26)	.063	-4.148***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611(.584)	.056	10.38***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507(.559)	.054	10.316***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47(.065)	.089	.731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104(.12)	.036	3.32***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461(.66)	.063	10.555***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이동훈 등 /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외상 후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표 7. 매개모형 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방성 →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611***	-.134	.111
개방성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282***	-.022	-.001
개방성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인지 → PTSD 증상	.211***	-.097	-.007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인지 → PTSD 증상	.136	.057	.102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인지 → 외상 후 성장	-.225	-.354	-.102
신경증적 경향성 →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023	-.051	-.006
신경증적 경향성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125	-.222	-.057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인지 →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255	.191	.335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인지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032	.011	.059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신경증적 경향성 → 외상 후 인지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176	.125	.249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가는 경로, 성실성이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성실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외상 후 인지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모형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개방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침습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66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134~.011)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개방성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개방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특정간접효

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08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022~-.001)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개방성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개방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46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097~-.007)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개방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136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057~.219)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225$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  $(-.354 \sim -.102)$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의도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23$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  $(-.051 \sim -.006)$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의도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125$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  $(-.222 \sim -.057)$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와 침습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255$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  $(.191 \sim .335)$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와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

성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32$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  $(.011 \sim .058)$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176$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  $(.125 \sim .249)$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트라우마 경험 이전(pretrauma)의 개인적 특성인 성격과 외상 후 인지, 반추(의도적, 침습적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Big 5 성격요인(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개방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상 후 인지,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 의도적 반추 및 침습적 반추의 경로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성실성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성실성과 PTSD 증상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Lawrence & Fauerbach, 2003; Stevanović, Frančišković, & Vermetten, 2016)들을 지지한다. 반면, 성실성이 높을수록 대처전략에 힘써 결과적으로 PTSD 증상을 완화하며(Paris, 2000; Schnurr & Vielhauer, 1999), 외상 후 성장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Caska & Renshaw, 2013; Karanci et al., 2012; Magnus, Diener, Fujita, & Pavot, 1993), 성실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반추를 하게 된다(Petrides, Pita, & Kokkinaki, 2007)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성실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연구마다 화재(Lawrence & Fauerbach, 2003), 전쟁(Stevanović et al., 2016) 국가경호(Caska & Renshaw, 2013)에서 경험한 트라우마 등 특정 트라우마 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남녀 비율 역시 연구마다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연구 대상자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특정 트라우마가 아닌 다양한 트라우마 유형을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국내 인구센서스에 맞게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까운 사람의 사망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미디어 노출, 사고,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등을 가장 고통스럽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트라우마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지 추후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외향성은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으로 직접 가는 경로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향성 특성이 트

라우마 경험 이후 심리상태의 긍정 및 부정적 변화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외향성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외향적일수록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되고(Jia, Ying, Zhou, Wu, & Lin, 2015; Swickert, Rosentreter, Hittner, & Ushrush, 2002), 외향성과 PTSD 증상은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지만(Fauerbach, Lawrence, Schmidt, Munster, & Coata, 2000; Stevanović, Frančišković, & Vermetten, 2016), 이와 반대로 Schnurr와 Vielhauer(1999; Lawrence & Fauerbach,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PTSD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Karanci et al., 2012). 우선 외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향적일수록 친화적이고 높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향성 그 자체로 개인내적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낙관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이해 가능한데(Jia et al., 2015), 이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Lepore & Revenson, 2006). 한편, 이와 달리 외향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탐험적인 특성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Fitzgerald, Berntsen, & Broadbridge, 2016). 선행연구에서 트라우마 노출 빈도가 PTSD 증상 발현에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볼 때(이동훈, 윤기원, 이수

연, 이은선, 김정한, 2016; Hagedaars, Fisch, & van Minnen, 2011; McGowan & Kagee, 2013), 외향성이 높을수록 트라우마에 노출될 빈도가 높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더욱 겪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우호성은 PTSD 증상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호성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호성이 트라우마 경험 이후 심리적 후유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높은 우호성 수준은 PTSD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밝힌 연구결과(Caska & Renshaw, 2013)와 일치하지만, 우호성 특성이 PTSD 증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Lawrence & Fauerbach, 2003; Stevanović et al., 2016). 우호성과 PTSD 증상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우호성이 PTSD 증상 간의 기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우호성의 특성이 높은 사람(Caska & Renshaw, 2013) 트라우마에 대한 자기 노출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 추구를 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트라우마 이후 부정적인 정서에만 몰두를 할 경향성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심리적 증상을 덜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개방성은 침습적 반추와 PTSD 증상과의 경로에서 각각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성이 높을수록 침습적 반추를 할 경향이 낮고, 심리적 증상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개방성이 트라우마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과 긍정적 변화와 관련 있다는 선행 연구(Affleck & Tennen, 1996; Shakespeare-Finch & Smith, 2005; Tedeschi & Calhoun, 1996)와 맥락이 같은 반면, 개방성과 PTSD 증상 간 유의한 관련이 없다(Cask &

Renshaw, 2013)는 결과와, 개방성이 낮은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Petrides, Pita, & Kokkinaki, 2007)이라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결과는 개방성 자체가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개방성 특성이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사고를 완화시키고 트라우마 이후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주요 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개방성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성이 높을수록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는 침습적 반추를 떨어뜨려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도 밝혀져, Tedeschi와 Calhoun(2006)이 제안한 '외상 후 성장 모델'을 지지하였다. 이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 일련의 반추 과정이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는 것으로, 특히 트라우마 경험자가 개방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반추의 과정이 더욱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성은 외적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항목들이 특징이 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Caska & Renshaw, 2013). 이에 주목해볼 때 높은 개방성일수록 인지적으로 유연하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방법을 찾아(Shakespeare-Finch & Smith, 2005), 트라우마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누구든지 처음 트라우마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 일어난 사건과 자신이 지각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느끼며 이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개

방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침습적 반추로써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성격 특성에 비해 개방성은 트라우마 이후 사건에 대해 곧바로 곱씹어보는 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침습적 반추를 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성장이 단순히 트라우마 이후 삶의 회복, 낮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과 의미 있는 삶의 추구인 점(Calhoun & Tedeschi, 2014)을 미루어보아, 개방적 특성과 더욱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과정이 외상 후 성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Calhoun & Tedeschi, 2014; Linley & Joseph, 2004), 인지과정과 연관된 개방성 특성이 긍정적 변화와 더욱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도 개방성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에 있어 완충작용을 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적 반응 촉진과 스트레스의 높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aska & Renshaw, 2013; Fitzgerald et al.,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와 달리 개방성과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를 거쳐 PTSD 증상에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외상 후 성장모델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방성이 높을수록 일련의 반추 과정을 거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하고 반복되는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등 인지적 측면과 관련 있는 개방성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개인은 사건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뿐

만 아니라 계속된 반추 과정을 통해 사건을 삶의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Rasmussen & Berntsen, 2010), 이를 통해 PTSD 증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Berntsen, & Rubin, 2006).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의도적 반추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항상 적응적인 결과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의도적 반추가 긍정적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일부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뿐만 아니라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Wu, Zhou, Wu, & An, 2015), 트라우마 이후 즉각적인 의도적 반추가 아닌 비교적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의도적 반추가 PTSD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Cann et al., 2011)와 유사하다. 이는 의도적 반추의 양방향성 측면 즉, 의도적 반추가 긍정 및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트라우마 경험자들이 의도적 반추를 통해 트라우마 이후 어떻게 삶을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긴 하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침습 및 의도적 반추의 시기가 트라우마 경험 직후인지, 혹은 몇 개월 이후인지 등 트라우마 이후의 침습 및 의도적 반추의 시기 역시 심리적 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섯째,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외상 후 인지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트라우마 경험 이후 부정적인 인지도식이 형성되어 부

적응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신경증적 경향성이 심리적 안정에 있어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Caska & Renshaw, 2013; Fitzgerald, Berntsen, & Broadbridge, 2016; Lawrence & Fauerbach, 2003; Stevanović, Frančišković, & Vermetten, 2016).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의도적 반추가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경증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 반추의 경로를 거치면 증상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적응적인 결과도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 경우 의도적 반추가 반드시 긍정적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로 의도적 반추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유의한 상기(benefit reminding)와 관련 있다고 보고한 것(Triplett et al., 2012)과는 상반된다.

한편,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외상 경험 이후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를 차례로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이 있을수록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기존 인지도식의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후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경로가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Tedeschi와 Calhoun(2006)이 제안한 외상 후 성장 모델의 인지 과정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박재실, 2016; Bennett & Wells, 2010; Chan, Ho, Tedeschi, & Leung, 2011).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존 신념으로는 트라우마 사건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신의 인지도식이 도전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트라우마 후 개인이 갖게 되는 부정적 인지 도식은 PTSD 증상을 예측함에 있어 주요 변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박재실, 2016; 안현의, 2005; Arikan, Stopa, Carnelley, & Karl, 2016; Moser et al., 2007). 이후 개인은 기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지 도식을 포기하여 현실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의미를 형성가능하게 하는 의도적 반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 변화로 이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과정 중 의도적이지 않게 사건을 재경험하는 침습적 반추를 거치면서 개인은 위협,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PTSD 증상을 지속시키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경증적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 외상 후 인지 과정 이후 침습적 반추만을 겪게 될 때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였으며, 선행 연구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침습적 반추가 심리적 증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귀화, 김종남, 2014;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Tedeschi & Calhoun, 2004).

본 연구결과에서 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성격 특성보다 신경증적 경향성만 외상 후 인지 모델에서 제안한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자의식, 스트레스 취약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PTSD 증상과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Lawrence & Fauerbach, 2003), 실제로 신경증적 경향성과 PTSD 증상의 연구 결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ska & Renshaw, 2013; Fitzgerald, Bernsten, & Broadbridge, 2016; Lawrence & Fauerbach, 2003; Stevanović, Frančišković, & Vermetten, 2016).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반추가 긍정적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인지과정을 밝혀, 신경증적 경향성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보고했던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경증적 경향성 자체 특성은 부적응적일 수 있으나,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은 트라우마 경험 이후 외상 후 인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를 차례로 거쳐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제시한 인지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심리적 증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된 신경증적 경향성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 경우 불안 경험에 대해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만일 이들이 트라우마에 노출될 경우, 다른 성격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위협적으로 사건을 지각해 더욱 더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높은 신경증적 경향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지

지가 낮고,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적응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Borja, Callahan, & Rambo, 2009; Erbes, Curry, & Leskela, 2009), 이러한 기제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를 경험할지라도, 트라우마에 대해 더욱 몰두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방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도적 반추를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신경증적 경향성의 특성상 심리적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경증적 특성, 즉 개인의 예민성, 불안과 위협에 대한 취약적 특성으로 인해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몰입하고 숙고하는 반추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 및 부정적 방향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에 자기개방,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특정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신경증적 경향성을 가진 대상의 인지적 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방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트라우마 경험 이후 의도적 반추를 겪는 후에 외상 후 성장뿐만 아니라 PTSD 증상을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의도적 반추가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 모두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Triplett et al., 2012),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트라우마 경험 극복을 위해 반추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사건에 대해서 심리적 고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령, 의도적 반추 이후 나는 더욱 강해졌고 트라우마를 더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건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증상과 외상 후 성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다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외상 후 성장 모델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모델을 검증함으로써 반추의 인지적 과정이 한국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선행 연구에서 성격 5요인이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의 트라우마 이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성격 5요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각 성격특성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각 연구마다 연구 대상의 특성(트라우마 경험 유형, 성별,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인구센서스 기준에 맞춰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편중을 줄여 성격 5요인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된 신경증적 경향성 이외에 다른 성격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트라우마 이후 반추의 과정과 그로 인한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을 진전시킨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트라우마 경험자 대상 상담 개입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개방성 특성 자체가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외적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개방성 특성이 트라우마 경험 이후 적응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라우마 후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특성에 대해 보다 이해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상담 장면에서 트라우마 경험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및 내외적인 환경에 대해 사건 당시 시점과 이후 경과 시점별로 다른 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등 다각적인 시각과 해석을 제공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신경증적 경향성에 대해서만 부정적 외상 후 인지 변화,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를 차례로 거쳐 외상 후 성장의 매개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을 부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주로 보고하며 치료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신경증적 경향성이 있을 때 오히려 일련의 인지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긍정적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성격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교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단기 상담이 보다 활성화 되었다는 현실을 반영할 때, 부적응적인 측면의 교정도 중요하지만 내담자에게 인지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동시에 회기별 인지과정 확인 및 개입 작업을 진행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설문이 진행되어 대상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대상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커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격 5요인 척도가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문항이 제거되어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PTSD 진단기준 A에 해당하는 특정 트라우마 사건 경험자가 아닌 생활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 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성격, 반추, 그리고 심리적 적응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 유형, 빈도 등에 따라서 각 변인들 간의 차이 및 영향력을 살펴보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상 후 인지 내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 후 개인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쾌한 요소와 관련된 생각에 노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트라우마 여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반추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면 추후 연구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혜원, 안현의 (2006). 초월, 영성 강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7(1), 201-214.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5.
- 유란경, 김은정 (2016). 낙관성과 외상후성장의 관계에서 수용, 부인, 정신적 비판여 대처와 사건관련 의도적 반추의 조절효과 검증. *재활심리연구*, 23(2), 417-437.
- 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학회*, 40(4), 581-591.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3): 303-310.
- 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대학생의 대인외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상경험 관련 변인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0(2), 95-117.
- 정은정, 김원희, 이동형 (2014). 고등학생의 성격 5요인과 SNS 이용동기 간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4(1), 17-31.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ffleck, G., & Tennen, H. (1996). Con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4), 899-92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ikan, G., Stopa, L., Carnelley, K. B., & Karl, A. (2016). The associ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posttraumatic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Anxiety, Stress, & Coping*, 29(1), 1-20.
- Bennett, H., & Wells, A. (2010). Metacognition, memory disorganization and rumination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3), 318-325.
- Berntsen, D., & Rubin, D. C.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2), 219-231.
- Borja, S. E., Callahan, J. L., & Rambo, P. L. (2009). Understanding negative outcomes following traumatic exposure: The roles of neuroticism and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 118.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01), 1-14.
- Calhoun, L. G., Tedeschi, R. G., & Tedeschi, R. G. (Eds.).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Routledge.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521-52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4).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Routledge.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aplan, G. (1964).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Casella, L., & Motta, R. W. (1990).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Vietnam veteran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Reports*, 67(2), 595-605.
- Caska, C. M., & Renshaw, K. D. (2013). Personality traits as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deployment experiences and PTSD symptoms in OEF/OIF service members. *Anxiety, Stress & Coping*, 26(1), 36-51.
- Chan, M. W., Ho, S. M., Tedeschi, R. G., & Leung, C. W. (2011). The valence of attentional bias and cancer related rumination in post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Psycho Oncology*, 20(5), 544-552.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
- Cryder, C. H., ...& Calhoun, L. G. (2006). An exploratory study of posttraumatic growth in



- children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6(1), 65-69.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61.
- Donnellan, M. B., Oswald, F. L., Baird, B. M., & Lucas, R. E. (2006). The mini-IPIP scales: tiny-yet-effective measures of the Big Five factor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18(2), 192.
- Edwards, J. A., Weary, G., & Reich, D. A. (1998). Causal uncertainty: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5), 451-462.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Erbes, C. R., Curry, K. T., & Leskela, J. (2009). Treatment presentation and adherence of Iraq/Afghanistan era veterans in outpatient care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Services*, 6(3), 175.
- Fauerbach, J. A., Lawrence, J. W., Schmidt Jr, C. W., Munster, A. M., & Costa Jr, P. T. (2000). Personality predictors of injury-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8(8), 510-517.
- Fitzgerald, J. M., Berntsen, D., & Broadbridge, C. L. (2016). The Influences of Event Centrality in Memory Models of PTSD. *Cognitive Psychology*, 30, 10-21.
- Florian, V., Mikulincer, M., & Taubman, O. (1995). Does hardiness contribute to mental health during a stressful real-life situation? The roles of appraisal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87.
- Foa, E. B., Ehlers, A., Clark, D. M., Tolin, D. F., & Orsillo, S. M. (1999).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1(3), 303.
- Frankl, V. E. (1962).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a Newly Rev. and Enl. Ed. of From Death-camp to Existentialism*. Translated by Ilse Lasch. Pref. by Gordon W. Allport. Beacon Press.
- García, F. E., Cova, F., Rincón, P., & Vázquez, C. (2015). Trauma or growth after a natural disaster The mediating role of rumination process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6.
- Grant, S., & Langan-Fox, J. (2007). Personality and the occupational stressor-strain relationship: The role of the Big Fiv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1), 20.
- Hagenaars, M. A., Fisch, I., & van Minnen, A. (2011). The effect of trauma onset and frequency on PTSD-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2(1), 192-199.
- Hills, P., & Argyle, M. (2001). Emotional stability as a major dimension of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8), 1357-1364.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Janoff-Bulman, R.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1992. NY: Free Press Google Scholar.

- Janoff-Bulman, R. (2004). Posttraumatic growth: Three explanatory models. *Psychological Inquiry*, 15(1), 30-34.
- Jia, X., Ying, L., Zhou, X., Wu, X., & Lin, C. (2015). The effects of extraversion, social support on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of adolescent survivors of the Wenchuan earthquake. *PLoS one*, 10(3), e0121480.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 114-158.
- Karanci, A., Işıklı, S., Tamer Aker, A., İzmit Gül, E., Başbuğ Erkan, B., Özkol, H., & Yavuz Güzel, H. (2012). Personality, posttraumatic stress and trauma type: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nd its domains in a Turkish community sample.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3.
- Keyes, C. L.,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
- Kleim, B., & Ehlers, A. (2009). Evidence for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 depression and PTSD in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1), 45-52.
- Lawrence, J. W., & Fauerbach, J. A. (2003). Personality, coping, chronic stress, social support and PTSD symptoms among adult burn survivors: a path analysis. *Journal of Burn Care & Research*, 24(1), 63-72.
- Lepore, S. J., & Revenson, T. A. (2006).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Recovery, Resistance, and Reconfiguration.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Luyckx, K., Klimstra, T. A., Duriez, B., Schwartz, S. J., & Vanhalst, J. (2012). Identity processes and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Short-term longitudinal dynamics and the role of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9), 1226-1239.
- Magnus, K., Diener, E., Fujita, F., & Pavot, W. (1993).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s predictors of objective life event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46.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
- McGowan, T. C., & Kagee, A. (2013).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South African university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43(3), 327-339.
- Morris, B. A., & Shakespeare Finch, J. (2011). Rumination, post traumatic growth, and distres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ith cancer survivors. *Psycho Oncology*, 20(11), 1176-1183.
- Moser, J. S., Hajcak, G., Simons, R. F., & Foa, E. B.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trauma-exposed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trauma-related cognitions, gender,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 21(8), 1039-1049.
- Muris, P., Fokke, M., & Kwik, D. (2009). The ruminative response style in adolescents: An examination of its specific link to symptom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1), 21-32.
- Nolan, S. A., Roberts, J. E., & Gotlib, I. H. (1998). Neuroticism and ruminative response style as predictors of change in depressive symptomatolog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5), 445-455.
- Paris, J. (2000). Predispositions, personality trai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8(4), 175-183.
- Petrides, K. V., Pita, R., & Kokkinaki, F. (2007). The location of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in personality factor spa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8(2), 273-289.
- Rasmussen, A. S., & Berntsen, D. (2010). Personality traits and autobiographical memory: Opennes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experience and usage of recollections. *Memory*, 18(7), 774-786.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chnurr, P. P., & Vielhauer, M. J. (1999). Personality as a risk factor for PTSD.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91-222.
- Schoedl, A. F., Costa, M. C. P., Mari, J. J., Mello, M. F., Tyrka, A. R., Carpenter, L. L., & Price, L. H. (2010). The clinical correlates of reported childhood sexual abuse: an association between age at trauma onset and severity of depression and PTSD in adult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9(2), 156-170.
- Shakespeare-Finch, J., Smith, S., & Obst, P. (2002). Trauma, coping resources, and family functioning in emergency services personnel: A comparative study. *Work & Stress*, 16(3), 275-282.
- Shakespeare-Finch, J., Gow, K., & Smith, S. (2005). Personality, Coping and Posttraumatic Growth in Emergency Ambulance Personnel. *Traumatology*, 11(4), 32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kodol, A. E. (1998). Personality and coping as stress-attenuating or amplifying factors. *Adversity, Stress, and Psychopathology*, 377-389.
- Stanton, A. L., Bower, J. E., & Low, C. A. (2006). Posttraumatic growth after cancer.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138-175.
- Stevanović, A., Frančičković, T., & Vermetten, E. (2016). Relationship of early-life trauma, war-related trauma, personality traits, and PTSD symptom severity: a retrospective study on female civilian victims of war.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7.
- Swickert, R. J., Rosentreter, C. J., Hittner, J. B., & Mushrush, J. E. (2002). Extraversion, social support processes, and 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5), 877-891.
- Taku, K.,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 R. G. (2008).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ath Studies, 32*(5), 428-444.
- Teasdale, J. D., & Green, H. A. (2004). Ruminative self-focus and autobiographical mem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8), 1933-1943.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Tedeschi, R. G., Park, C. L., & Calhoun, L. G. (Eds.). (1998).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Routledge.
- Tedeschi, R. G., Calhoun, L. G., & Cooper, L. (2000).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in older adults. In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6). Expert companions: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291-310*.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84.
- Triplet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
- Val, E. B., & Linley, P. A. (2006).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and negative changes in Madrid residents following the March 11, 2004, Madrid train bombing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5), 409-424.
- Vollrath, M., Alnæs, R., & Torgersen, S. (1995). Coping styles predict change in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9*(4), 371.
- Watson, D., & Hubbard, B. (1996). Adaptational style and dispositional structure: Coping in the context of the Five 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64*(4), 737-774.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2*, 168-189.
- Wood, A. M., Joseph, S., & Maltby, J. (2009). Gratitude predicts psychological well-being above the big five face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443-447.
- Wu, X., Zhou, X., Wu, Y., & An, Y. (2015). The role of rumination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after the Wenchuan earthquake. *Frontiers in Psychology, 6*.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이동훈 등 /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외상 후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1차원고접수 : 2017. 01. 18.

수정원고접수 : 2017. 04. 25.

최종게재결정 : 2017. 06. 15.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7, Vol. 36, No. 2, 241-270

<http://dx.doi.org/10.22257/kjp.2017.06.36.2.24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Posttraumatic Cognition,  
Event-Related Rumination, Posttraumatic Disorder(PTSD)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PTG):  
Based on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Dong Hun Lee    Su Yeon Lee    Ki Won Yun    Su Jung Choi    Kim si Hyeong

Sunkyunkwa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which is a pretrauma characteristic, posttraumatic cognition,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PTG),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The participants were 1,000 adults who experienced traumatic event. For statistical analysis we set the research model with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ffecting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posttraumatic cognition and intrusive rumination. Competing model was set without the path from intrusive rumination to deliberate rumin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cognition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PTG, PTSD symptoms. Seco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between openness to experience and PTSD symptoms. Moreover, the pathway to intrusiv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and PTG from openness to experience was also significant. Third, the pathway to posttraumatic cognition, event-related rumination, and both PTSD symptoms and PTG from neuroticism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pport the cognitive process of PTG model. In the end we discusse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osttraumatic cognition,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PT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